

## 전국 건설업 경기 '기지개' 경기체감지수 17.5P 올라

올 6월 전국 건설업체들의 경기체감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0.5로 전월에 비해 17.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올 4월(88.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CBSI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조사한 수치다.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현재 경기를 낙관하는 사업자들이 다수임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기반시설 투자 계획 등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에 3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경기 전망치는 86.2로 전월보다 5.1포인트 올랐다. 윤종현기자

##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공고서 명시

### 내달 300억 미만 입찰분부터 적용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이 공고서에 명시된다.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입찰 공고에서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다음달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계약 체결 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된다. 세부적으로 올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설공사 착

공 준비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로 착공일을 지정, 건설업체의 촉박한 서류 제출과 형식적인 착공계획서가 접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